


친구와 동료 사이

회사에서 맺은 인연은 일로 시작된 사이. 함께 일하는 동료 또는 선후배와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? 우리 회사 20~30대 그리고 40대 이상 임직원의 생각을 알아본다.

일로 만난 사이일 뿐, 친구는 불가능하다
 20~30대 10.8%
 40대 이상 14.6%



VS

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어디서 만났는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.

실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직장동료가 있습니다. 처음부터 친구가 불가능하다는 마음가짐과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은 결과에서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.

한두 명쯤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서로 존중하며 지켜야 할 선이 있을 뿐.


없을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생기더라고요. 회사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잘 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

지금도 마음 터놓는 친구가 있어요! 직장동료 친구! 이슬아, 소정아~ 고마워.

입사 동기이지만 회사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 혹은 개인적인 일도 서로 터놓으면서 위로와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.

회사가 엮어준 인연이지만 언젠가 회사를 떠나도 계속될 인연이죠.

얼마든지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될 수 있다
 20~30대 89.2%
 40대 이상 85.4%



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회사 업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이이기에 어느 정도 친하게는 지내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
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런저런 옵션들을 따지게 되어서 불가능!

동료로서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나, 도가 지나치면 업무 상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듯.

전 직장에서 동료에게 말했다가 전 직원이 다 알게 됐어요.^^

직장에서 만난 동료는 함께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장 가깝고 친한 '동료'로 남겨둬야 합니다. 일할 때에는 '친구' 보다 '친구 같은 동료'가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.

이해관계 없이 순수한 대화를 나눌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.

세대차이 극복 TIP

직장 내 세대차이,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숙제



각기 다른 세대가 겪는 갈등은 세계 어느 곳, 어느 집단에나 흔히 있는 일이지만 특히 직장 내 세대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? 보통 직장에서의 세대차이는 사회생활에 능숙한 윗세대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아랫세대가 서로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. 흔히 윗세대는 "요즘 젊은 사람은 일에 대한 열정이 없다"라고 치부하고, 아랫세대는 "변화하지 않는 꼰대"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.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(93.6%)에서 업무에 대한 열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, 세대차이를 위해 가장 노력하는 세대는 50대(72.2%)였다. 그러나 아랫세대는 서툴지만 다가오려고 노력하는 선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, 윗세대는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보이는 후배의 작은 성과에도 박수 쳐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. 결국 세대차이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극복해야 하는 공동의 숙제임을 기억해야 한다.